개발부담금 때문에… 여천NCC, 5500억 투자 보류

여수산단 한화·대림 등 4개 기업도 4조 유보

대기업 투자 발목 잡아… 규제 개혁 여부 주목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기초제품 생산 회사인 여천NCC가 과도한 개발부담금 때문에 5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보류하는 등 개발부담금이 대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천NCC 외에도 여수산단의 4개 대기업이 같은 이유로 4조원에 가까운 투자를 유보중인 것으로 알려져 규제 개혁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여수시와 여천NCC는 "박종국 사장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회의에서 '개발부담금을 개선해야 한다'며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다. 현재는 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부담하는 공사금에다 개발부담금의 규모가 너무 커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여천NCC는 회사 땅인 13만5000㎡를 공장용지로 바꾸는 개발계획을 전남도에 신청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녹지를 공장용지로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 원가의 3배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법률 조항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부담금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지가상승분의 50% 국가귀속), 생태계 보전비 등이 포함돼 있다.

여천NCC는 이런 부담금을 고려할 때 공장을 증설하려면 주변 공장용지 토지 조성비(150억~2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여천NCC는 결국 최근 55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또 한화, 대림, 금호피앤비, 케이피엑스라이프사이언스 등 4개 기업도 여천NCC와 마찬가지로 부담금 때문에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실상 투자를 유보했다. 이들 4개 회사가 투자하려는 액수만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대체녹지 조성비만 내면 될 것으로 알았던 기업들이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이 예상보다 많아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규제개혁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장 증설 과정에서 기업들이 중복 부담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해 법 개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전남지역 군수 예비후보 30명 등록

등록 첫날… 기초의원 106명

6·4 지방선거 군수·군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23일 30명의 군수 입지자들이 등록을 마쳤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남 17개 군수 선거에 30명의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가장 많은 지역은 화순으로, 모두 5명이 등록했다.

또 완도와 장흥 선거구에서 각각 4명과 3명이 등록했고 장성, 해남, 무안, 영광 등지는 첫날 등록한 후보가 없었다.

이 중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가 12명인 반면, 무소속은 18명에 달해 무소속의 도전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17개 군의회 기초의원 선거에는 첫날 10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한편,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5회 이내에서 이메일·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어깨띠·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北, 새벽·야간 무더기 로켓 발사… 심리전술

지난 16일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단거리 로켓 발사가 독수리연습(FE)에 참가한 한미 양국군을 겨냥한 일종의 심리전 성격의 전술 행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새벽과 야간시간을 택해 로켓을 무더기로 쏘고 있는 것은 한미 연합군에게 피로감을 주겠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북한이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째 단거리 발사체를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데는 자체 동계훈련과 무력시위 등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지만 취약시간대에 발사하는 행태만 놓고 본다면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6일에는 오후 6시20분부터 9시32분까지 세 차례, 22일에는 오전 4시부터 6시10분까지 세 차례, 23일은 오전 0시52분부터 2시31분까지 두 차례 각각 지대지 로켓인 '프로그(FROG)'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다.

특히 16일부터는 강원도 원산 인근 갈마반도에 전개된 10여 대의 발사 차량 중 일부가 인근 나무 숲에 숨거나 원산 시내로 이동하는 등 한미 첩보망을 교란하는 듯한 전술도 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초에도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동해 한 달간 배치한 사거리 3000㎞에 달하는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차량을 이런 전술에 활용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발사 차량을 격납고로 숨기거나 갑자기 발사대를 세우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고, 이는 미사일 동향을 관측하는 한미 군당국의 피로감을 높이고 정보를 교란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또 최근 일주일 사이 71발의 프로그 로켓 추정 발사체를 쏘고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총 88발의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도 특이한 일이다. 사거리 60~70㎞의 프로그 추정 로켓은 이날 16발에 앞서 16일 25발, 22일 30발 등이 동원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보유중인 프로그 로켓 100여 발 중 일주일 만에 70%가량이 소진됐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프로그 로켓은 옛 소련에서 도입한 지 40년이 넘어 정밀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독수리연습을 계기로 '통크게 재고를 정리한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

개발부담금제 전면 손질

국토부, 연구 용역 발주

정부가 여수산단 등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면 손보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개발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도시개발 포화 등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개발이익의 개념부터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수년째 연평균 지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밑도는 등 상황이 변화해 개발이익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개발부담금 도입 초기 한 해 4500억원에 달했던 부담금 수입은 최근 연간 2500억원 안팎으로 줄었다. 개발부담금 부과율이 50%에서 25%로 낮아진 탓도 있지만 개발사업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산정 때 쓰이는 '개발 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기준도 다듬을 계획이다.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매년 200여건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 징수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또 거둬들인 개발부담금을 적극적인 토지 개발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개발부담금의 취지에 맞는 사용 용도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비(非) 강남권 경제활력 프로젝트' 등 1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황식 캠프' 이성헌·박선규 등 호남출신 주도

이명박 정부 장·차관에 일부 DJ계 합류할 듯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경선 캠프의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경선 전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23일 선거캠프 대변인에 유성식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을 임명했다. 유 대변인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로써 김 전 총리의 캠프는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췄다.

김 전 총리의 캠프는 호남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영광 출신인 이성헌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역으로 선거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서울희망포럼 등을 이끌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운 친박계 인사다. 2월 중순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던 이 전 의원은 김 전 총리의 요청을 받고 급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KBS 기자를 거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선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허용범 동대문갑 당협위원장이 돕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전북 익산 출신이다.

김 전 총리의 광주제일고 선배이자 함평 출신인 윤원중 전 의원은 특보단장으로 뛰고 있으며 나주 출신인 박병윤 전 민주당 의원과 오신환 새누리당 관악을 당협위원장 등도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 재임 중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장·차관급 인사들이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DJ계 인사들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총리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6층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개소식을 연다. 선거구호는 '바른 행정 다른 시장 멋진 서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혁신도시 기관 지역출신 채용

이강후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원주을)은 최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역소재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만 한다. 현행법에는 지역 출신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조항만 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형표 복지부장관

목포 한국병원 방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목포 한국병원을 방문해 지역 의료시설과 응급시스템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이날 목포 한국병원에서 권역외상센터 설립사업,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 등을 점검한 뒤 이날 오후 KTX편으로 귀경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축원룸 매매전문(전대1분)

★전대상대1분(용봉지구코너)★
신축 4층 룸21개 (상가 2칸, 4층주택)
엘리베이터 시공, 대리석, 벽돌시공
월수익 850만(연 1억)
매가 12억(보1억 융3억) 수익율 13%

★전대정문,후문1분(신축4층룸12개)★
1층 상가, 4층주택. 월수익 400만 매가 6억 7천

★서구화정동신동아APT★
(신축5층 룸 27개 상가 85평)
월수익 1400만 (보3억 융5억) 매가 21억

★북구용봉동신축4층룸14개★
(안집1개) 보2600 월470 융2억 매가 7억 5천

★신안동신축원룸(정문1분)★
원룸14 안집(30평대)
보2800 월450만 매가 8억 7천

★용봉동원룸,원투룸18★
안집(50평대) 월수익 610만,매가 10억 5천

★나주이창동KTX역5분거리★
원룸 18개 보 800만 월 540만 매가 5억

☎010-6670-9800
062)952-5984

수익성상가 매매전문

수완지구상가매매
- 한도빌딩(대방5차아파트 후문 바로앞) 1층상가매매 18평 (보2천 월130 융 1억5천)매가 4억 ▶3억 5천(할인가)
- 한솔빌딩 3천세대 모아APT입구 3층 상가 매매 85평 (보3천 월 200융 2억 5천) 매가 4억 ▶3억 4천(할인가)
- 엠스타빌딩 롯데마트 대로변3층 상가 매매 62평 (보3천 월 180만 융1억5촌) 매 3억 ▶2억 5천(할인가)

서구 쌍촌동 빌라 매매
(원룸형 오피스텔)
- 원룸형 빌라 (11평) 보200 월 27만 매가 4500 ▶3800만(할인가)
- 원룸형 빌라 (12평) 보200 월 28만 매가 4500 ▶3900만(할인가)
- 투룸형 빌라 (14평) 보300 월40만 매가 5500만 ▶4800만(할인가)

수완 상가 임대
-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
- 3층임대 45평 보2천 월110
- 3층임대 20평 보1천 월 60
- 3층임대 62평 보3천 월150

010-6832-9700
010-2676-703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급매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지하철 쌍촌역 4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 병.의원, 사옥,학원,자동차정비시설등 적합 7억 천
◦ 동명동 대지 318㎡(96)건평 228평 상가, 주택, 원룸등 18개 전세 1억2천선에 월500선 9억6천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6) 4층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 2천
◦ 동구 대지 542㎡(164)건물 3968㎡(1200)18억 2천
◦ 동구 예식장 대지 1924㎡(582) 건물3287㎡(994) 요양병원등도 적합 감정 47억3천 매도 27억3천
◦ 남구청 부근 대로변 병원, 요양시설등 적합 대지 1461㎡(442)6층 건물 3656㎡(1015) 매도 36억3천

임대 • 투자
◦ 임대,쌍촌동용산그린아파트부근 투룸,쓰리룸 보증금 천만원에 월 30~40, 방크고 깨끗함
◦ 쌍촌동 원룸 투룸 건물 대지 222㎡(67) 건평 330㎡(100)지하철 운천역 2분거리 보증금 2천선 월 300선 4억5백만원
◦ 시골주택 담양군 봉산면 광주에서 10분거리 대지 665㎡(198)주택 162㎡(49)전원생활적합 9600만원
◦ 투자, 매월동 매월저수지옆 경관좋음 빌라, 다세대 적합 자연녹지 5485㎡(1659) 매도 31억5천
◦ 쌍촌동 구 등기소 부근 신축투룸 보증금 2000에 월 25선 임대 1층 가게 22평은 전체나 분할 임대가능 조건은 타협함
◦ 장성읍 그린벨트산 132397㎡(40050) 3억8천
◦ 쌍촌동 용산그린아파트 부근 2종 주거지 674㎡(316)다가구, 다세대 적합 공시지가 4억3천 매도 4억5천
◦ 한라봉 농장 나주시 반남면 7187㎡(2178) 연 6천만원정도 수입 전원생활에도 좋음 3억8천5백만원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희망공인중개사

고객님의성공을희망합니다

상가/건물
▶ 상무지구 신축건물 매 72억
▶ 쌍촌동 광송간 대로변 3층건물 매매 12억
▶ 쌍촌동 5층건물 매 15억(보 1억7천 월656만원 포함)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구분점포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명프렌차이즈 입점)
▶ 전남대 정문 신축 4층원룸건물 480㎡(원룸11 투룸3 주인세대) 매 9.5억(보3.3억 월477만)

대지/전답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750㎡ 매매 26억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661㎡ 매매 14억
▶서구 쌍촌동 대지 5,000㎡ 32억(원룸단지적합)
▶남구 주월동 병원최적합 부지 2,290㎡ 매매54억
▶북구 신안동 대지 3,100㎡ 매매 36억
▶북구 문흥동 교도소부근 잡종지 6,300㎡ 매매 50억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지역 전 29,800㎡ 39억

기 타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융 5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 환영

서구 치평동 라인동산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 010-5536-0382 062) 373-0382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급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 지
3,305㎡
건 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녹지(2,100㎡)
일반 공업지역(2,400㎡)
허가필, 매매가격18억원

쌍촌동 대로접
대지(1,100㎡)건물(300㎡)
매매가격 17억원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